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3/27~4/2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시리즈1)육체의 한계를 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6	보리도차제광론2(나란다불교학술원총서2)	쫑카파	도서출판나란다
2	일곱번의 작별인사(무비스님의 49재 법문집)	무비	불광출판사	7	체계불학:신념체계로서의불교학	김성철	오타쿠
3	아사나쁘라나야마무드라반다	사라스와띠	한국요가출판사	8	수구즉득다라니:금강정유가최승비밀성불수구즉득신변가지성취다라니의궤	불공금강/석법성	운주사
4	중관학 특강:색즉시공의 논리	김성철	오타쿠	9	숫타니파타-붓다의 말씀(소/A6)	퇴현 전재성 역주	한국빠알리성전협회
5	해주스님의 법성게 강설	수미해주 강설	조계종출판사	10	부처님이 설하신 율장(비구편)	비구 범일	여시아독

책세상

세계 불교윤리 사상·쟁점들 '한눈에'



불교윤리1·2

다니엘 코조트 · 제임스 마크 쉴즈 편집

이동수 옮김/ 3만8000원 · 4만3000원

전문 학자 29명, 논문 31편 엮어
종파, 지역별 불교윤리 개론부터
안락사 등 현대 쟁점까지 망라해
불교윤리 전반 비판적 고찰 의미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윤리(ethics)는 삶의 바람직한 방향이며, 선과 악에 대한 도덕적 관념의 표준이다. 조금 더 자세히 풀이하면 윤리는 사회적 존재로서 나와 타인이 서로 마땅하게 지켜야할 도덕적 규범이자, 사회적 관계의 도덕적 표준을 의미한다.

하지만, 상호가 지켜야할 도덕적 규범이라는 것이 쉽게 규정되지는 않는다. 소위 인간이 행해야 할 도리라는 것도 민족마다 다를 수 있고, 지역이나 세대, 그리고 그 공동체가 마주하고 있는 환경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불교에서도 '이것이 불교 윤리다'라고 한마디로 정리하기는 쉽지 않다. 불교는 2600여 년의 기나긴 역사를 지닌 만큼 시대적, 지역적, 민족적 변용을 거친 다양한 형태의 모습으로 생성, 발전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은 다양하게 분화되고 정교화 돼, 각자 독립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모두는 놀라울 정도로 도덕적, 윤리적 유사성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핵심은 의도와 행위에 의한 결과, 즉 업(業) 개념과 사성제(四聖諦), 팔정도(八正道)이다. 스스로 불교라고 칭하는 종파들은 필연적으로 이 개념들을 바탕으로 논리를 전개하고, 이에 따라 수행하고, 궁극적으로 열반을 지향한다. 그리고 만약 이 토대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불교의 역사는 곧 출가 승가가 이끄는 전통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승가는 공동체 생활을 기본으로 한다. 그리고 공동체가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지켜야 할 계율들이 필수적이다. 이것이 불교가 다른 종교들보다 윤리적 행동을 강조하는 이유 중 하나다. 승가는 정교한 계율의 지침에 따라 운영되며, 비구에게 227개, 비구니에게는 311개, 일견 과도하게 여겨지는 계율이 주어진다.

윤리가 불교에서 특히 중요시되는 이유는, 불교의 종교적 이상이 어떤 특정 신에게 복속하거나 순종하는 데에 있기보다 덕행의 완성과 깨달음의 성취에 있기 때문이다. 즉 스스로 지은 바에 의해 그 결과가 이루어지므로, 스스로의 생각과 행동을 제어하고 훈련하고 실천해야 한다.

대원학술총서 14번째 시리즈인 〈불교윤리 1·2〉는 불교 윤리의 중요한 주제에 대해 거의 모든 것을 담아내고 있다.

책에는 해당 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29명의 학자가 불교 윤리의 전통·현대적 주제에 대해 균형 있고 비판적으로 성찰한 31편의 논문들을 모아 엮었다.

논문들은 주요 불교학파나 중관파·정토종·선불교·탄트라 등 종파불교, 남아시아·동남아시아·동아시아·티베트 등 지역 불교의 전통적인 윤리 문제뿐만 아니라, 인권·자살·낙태 등 현대 사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윤리적 문제들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다.

실제, 최근 영화 〈플랜75〉와 연극 〈비Bea〉에서 다뤄지며 다시 사회적으로 불붙은 조력존엄사와 안락사 논쟁에 대해 불교윤리적 해법의 단초를 이 책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불교도에게 죽음은 최후의 목적이 아니라 환생과 새로운 삶으로 가는 문이다.〈중략〉 붓다는 인간의 고통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그의 말과 본보기 사례를 통해 그의 추종자들이 병들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보도록 격려했다. 그러나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붓다는 의료 치료 선택사항으로 안락사를 거부했다. 불교의 의사들은 2000년이 넘게 그의 선례를 따라왔고, 오늘날 불교도들이 이것이 바뀌어야 하는 설득력 있는 이유에 대한 증거는 거의 없다." –〈불교윤리2〉 620~621쪽

이처럼 이 책은 불교 윤리의 중요한 주제 대부분을 다루고 있는 대작이다. 당분간 '불교윤리'라는 주제로 이보다 더 방대하고 충실한 저서는 나오기 힘들 것이다.

〈불교윤리 1·2〉의 최대 장점은, 붓다 재세 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 주제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이 삶 속에서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 문제들에 대한 관점도 폭넓게 제시돼 있다는 것이다.

책을 번역한 이동수 씨는 "불교윤리와 종교윤리, 서양철학의 윤리를 비교·연구하고자 하는 불자나 불교의 가르침, 윤리를 알고자 하는 일반 독자들에게도 흥미를 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불교 우화에서 뽑아낸 삶을 바꿀 실천과제들

물뿌리개를 손에 쥔 원숭이

미카엘 슈타인반트 지음

원당희 옮김/ 세창미디어

1만8500원

옛날이야기를 하나 해보자.

깊은 숲 속에 근심 많은 토끼가 살고 있었다. 근심 많은 토끼는 어느 날 풀을 먹다가 '만약 세상이 멸망하면 어디로 피해야 하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찰나, 사과 하나가 나무 잎사귀로 떨어져 '쿵'소리가 났다. 소리에 놀란 토끼는 겁에 질려 "세상이 멸망한다"면서 굴에서 뛰쳐나갔다.

이를 본 친구 토끼들과 다른 동물들도 함께 겁에 질린 채로, 숲을 내달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이 든 사자는 공포에 사로잡힌 무리들에게 이유를 물었고, 소문의 진원지를 찾았다. 이내 근심 많은 토끼와 대면한 사자는 세상이 멸망한다는 말하는 이유를 물었고, 토끼는 나무 아래 자신의 굴에서 '쿵'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모두 함께 토끼의 굴에 가보니 종려나무 잎사귀에 떨어진 사과만이 있을 뿐이었다.

이 이야기는 부처님 전생담 중 하나인 〈다다바 자카타(Daddabha Jataka)〉에 담긴 것이다. 이 내용은 요즘 학술 용어로 부정적 소식이나 기억이 강렬하게 다가오고 오래 기억된다는 '부정성 편향'을 그대로 보여준다.

독일에서 불교의 마음챙김과 묵언 수행을 지도하는 미카엘 슈타인반트가 지은 〈물뿌리개를 손에 쥔 원숭이〉는 부처님 생애와 전생담(자타카)을 통해 우리의 삶에 대한 성찰을 이끌어낸다. 이 책은 불교 전통에서 유래한 52가지 우화로 독자들이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고, 삶의 의미를 깊이 있게 성찰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무엇보다 이 책은 바쁜 현대인들에게 일상 속에서 안정·평안으로 나아가는 실천방법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부처님의 생애에서 뽑아낸 교훈과 전생 이야기들은 인간관계, 자아 인식, 욕망과 집착의 극복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각 이야기 후에는 그 교훈을 현대적 맥락에 맞게 해석한 해설이 이어진다. 이러한 구성은 독자들이 각 우화 속에서 제시된 가르침을 자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실제, 앞서 소개한 〈다다바 자카타〉를 통해서 저자는 다수가 옳다고 하는 일에 아무 생각없이 뒤따라가지 않았는지, 부정적 소식들은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되돌아볼 것을 권유한다. 또한, 한 주의 목표로 뉴스를 하루에 한 번만 찾아보는 등 매체 이용을 줄이고, 모든 소셜미디어 활동을 포기할 것을 제안하기도 한다.

〈물뿌리개를 손에 쥔 원숭이〉는 불교의 깊은 지혜를 현대적 해석과 함께 제공하며, 독자들이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기 성찰과 마음의 평화를 찾는 방법을 배우며,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여정에서 중요한 가이드를 얻게 된다.

저자는 "제 삶에서 개인적으로 불교 이야기와 연결되는 일화들을 통해 현시대에 통용되는 사고의 접점을 찾아보려 했다"면서 "그렇기에 이야기가 끝날 때마다 여러분이 이야기로부터 어떤 지혜를 배울 수 있는지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다"고 책에 대해 설명했다.

이야기를 마친 저자는 책의 말미에 묻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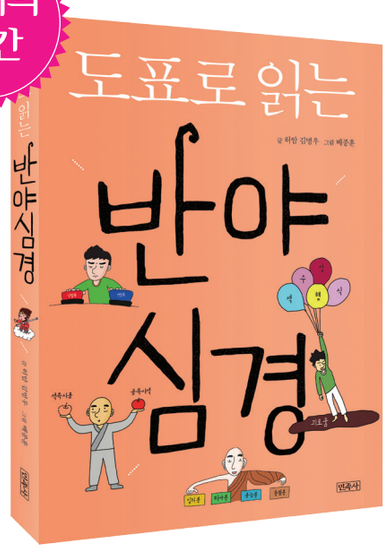
"나는 내 삶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을까? 나는 나 자신의 행복을 만들어 내는 대장장이일까?"

신중일 기자

가장 간결한 260자의 불교 철학

『반야심경』의 글자 하나하나의 의미뿐만 아니라
핵심 사상인 공의 세계로 이끌어 주는 길잡이

화제의 신간



도표와 함께 읽으면 반야심경이 한눈에 쏙 들어온다.
산스끄리뜨본, 한역본, 에드워드 콘즈의 영역본을
비교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해설,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반야심경』은 자주 접하는 경전이지만
막상 내용을 모르거나, 너무 기본이라고 생각돼서
차마 주변에 물어보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반야심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명료하게 일깨워 주고 있다.

글 김명우 · 그림 배종훈 | 280쪽 | 18,500원



도표로 읽는 시리즈

도표로 읽는 명상 입문
2023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우수도서
글 혜명 김말환 · 그림 배종훈 / 15,800원



도표로 읽는 불교 입문
2016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우수도서
글 이자랑 · 이필원 그림 배종훈 / 13,800원



도표로 읽는 유식 입문
글 안환기 · 그림 배종훈 / 15,800원



도표로 읽는 불교 교리
글 법상 · 그림 용정운 / 15,000원



도표로 읽는 부처님의 생애
글 묘장 · 그림 배종훈 / 15,800원



도표로 읽는 경전 입문
글 정운 · 그림 배종훈 / 15,000원



도표로 읽는 천수경 입문
글 목경찬 · 그림 배종훈 / 15,000원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